

전북 땅 반 이상 '임야' 가치 높인다

도교육청, 전국 최초로 산림경영계획 수립... 12개 지역 총 183필지

전북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교육청 소관 재산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임야 관리에 나선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청 소관 재산 중 184필지 631ha 면적의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임야를 관리하고 활용가치를 높여갈 예정이다.

도교육청 재산팀은 지난 해부터 공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시작하였으며, 전체 토지 면적의 55%를 차지하는 임야가 면

적대비 재산가액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

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임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학교 밖 재산으로만 인식하여 극히 일부 재산만 활용하고 있는 임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산림관리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지난 9월 대리경영계약을 맺고 현지 조사, 임황 현황 등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하여 내년부터 산림경영계획이 실행되도록 진행하고 있다.

1필지 당 5,000㎡이상의 일반재산 총 807ha 임야에 대하여 현지 조사와 위성사진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어려운 국립공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수물지역 등을 제외하고 산림조사를 실시한 후 184필지 631ha에 대하여 경제수목을 중심으로 한 나무심기,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휴야베기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도교육청 임야활용 계획은 공유재산을 데이터화 하여 많은 면적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의 자문을 받아 장기적인

공유재산관리 방향을 세우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임야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학교 밖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 확인을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넓은 면적의 임야를 활용하는 경제 수목 조성으로 교육목적 활용가치를 높여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높이고,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13일 오후 각 지역의 재산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상민 기자



교육가족 문화형성 '너도나도 공모전'

우수작품 54편 선정 발표



전북도교육청이 전북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와 소통하는 교육가족 문화 형성을 위해 개최한 '2017 하반기 너도나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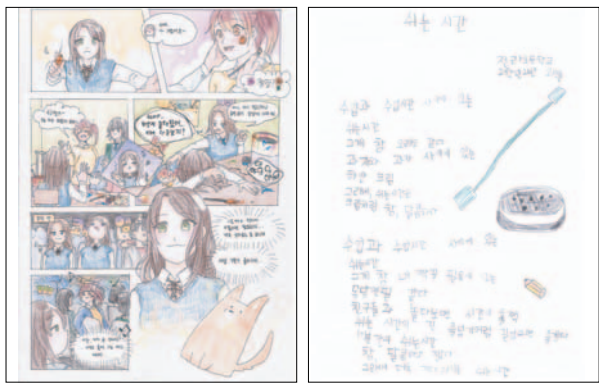
도교육청은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공모전 접수 결과 사진 757편, 웹툰 219편, 동시 765편 등 총 1,741편이 접수했다.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각 분야별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5편, 장려상 10편 등 총 54편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

이번 심사결과 사진 분야는 최창훈(전주인봉초) 교사의 '선생님 제가 일등이에요!', 웹툰 분야는 조예련(정일여자중) 학생의 '불 위에 피운 작은 행복', 동시 분야는 오선율(전주전라초) 학생의 '쉬는 시간'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각 분야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들은 전북교육소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동시 분야 심사를 맡은 김자연 동화작가는 "글은 경험한 것이나 자신만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데, 많은 글들이 추상적인 말



로만 나열해 아쉬웠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이런 표현을 한 작품보다는 자신의 느낌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정했다. 특히

대상을 받은 작품은 쉬는 시간의 달콤하고 즐거운 마음을 아주 새롭게 표현했다"라고 평했다. /이상민 기자

세계최초 AI 월드컵서 전북대 우승컵 차지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자율로봇연구실(지도교수 이말래) 학생들이 세계 최초로 열린 'AI 월드컵 2017(AIWC 2017)'에서 영광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13일 전북대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주최로 지난 1일 대전에서 진행된 이 대회는 AI 축구와 AI 경기해설, AI 기자 등 총 3개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11월 초까지 참가 접수한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총 26개 팀이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 전북대 'AR Lab' 팀은 AI 축구 우승을 차지, 트로피 및 부상 1000만 원을 수상했다.

가상공간에서 진행되는 AI 축구는 AI 기술로 축구하는 방법을 학습한 5명의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 상대팀 골대에 골을 넣는 축구 경기다.

전북대 학생들은 물리 엔진이 적용된 시뮬레이터 'webots'로 물리법칙을 구현, 양 바퀴에 속도를 줌으로써 각각 5개의 로봇(differential wheeled robots)을 제어했다.

AR Lab 채홍석 팀장은 "학습할 때 선수 개개인이나 선수를 총괄하는 한 명의 감독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독을 학습시켰다"며, "특정 전략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 공격하고 방어할지 AI 선수에게 선택권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자율로봇연구실은 지도교수 1명, 박사후과정생 1명, 박사과정생 7명, 석사과정생 8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상민 기자

"겨울방학 숙제 조금만"

도교육청, 1인 1과제 권장

전북도교육청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1인 1과제' 등 과제 양을 줄일 것을 권장했다.

13일 전북도교육청이 펴낸 2017년 겨울방학 관리지도를 보면 자율적 학생 주도형 방학과제를 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제를 줄일 것을 당부했다. 획일적인 과제 대신 '1인 1과제' 등 호기심과 관찰력을 기릴 수 있는 과제를 안내하

리는 것.

또 경쟁심을 유발하는 방학과제물, 방학과제 전시회를 지양해줄 것도 덧붙였다. 또 수행평가와 연계한 방학과제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방학과제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와함께 겨울방학기간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 참가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과후학교 참가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서를 비치하고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기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도교육청, 유치원·학교에 감염병 관리 당부

전북도교육청이 보건당국이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6.6명/1,000명)을 초과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며 보건교육, 개인위생수칙 안내 등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 당부했다.

강원, 인천, 세종, 충북, 충남지역에서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인플루엔자 관리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환경 관리 등에 철저히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받기,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실천, 자기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